

‘표류 끝내나’ 안산 대송단지 개발, 내년 로드맵으로 재가동 시동 안산 대송단지, 20년 숙원 풀리나... 연계 개발 · 예산 반영으로 탄력

안산 대송단지 개발 탄력받나

20여 년간 자연과 표류를 반복해 온 안산 대송단지 개발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상화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인구 5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자족도시를 목표로 시작된 이 사업은 그동안 경기 침체, 사업성 논란, 보상 문제 등 복합적 난제에 발목이 잡혀 왔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의 시·화호 발전 전략 발표와 안산시의 예산 반영이 맞물리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국토부 연계 개발 전략으로 숨통

대송단지는 대부동 일원 약 25.15㎢ 규모로, 2000년대 초부터 추진됐지만 사실상 장기간 표류해 왔다. 시·화호 지역 특성상 환경오염 우려와 교통·물류 기반 부족으로 개발 여건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토부가 ‘대송지구-송산그린시티’ 연계 개발을 핵

심으로 하는 ‘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 계획’을 확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신안산선을 중심으로 한 광역철도망과 내부 방사·순환형 교통 체계 확충이 포함되면서 그동안의 교통 취약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송단지 개발의 구조적 장애물을 줄이고, 산업·주거 기능을 동시에 갖춘 자족형 도시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는 청신호로 평가된다.

보상·재원 마련이 핵심 변수

대송단지는 공유수면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안산시가 아닌 한국농어촌공사라는 점에서 보상비와 재원 마련이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산업용지가 본격 공급되면 수익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초기 보상비가 급증할 수 있어 사업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안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 구체화를 위한 용역비를 반영해 전략적 접근에 나섰다. 이는 대송단지 개발을 현실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사업성 재검토와 토지 이용 체계 정비 등이 핵심이다.

지난 2월 완료된 ‘대부동 종합발전 계획’에서도 대송단지를 포함한 71.15㎢ 전역에 대한 인구 유입 방안, 광역 교통 전략, 민간 개발 활성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성장관리계획 등이 제시됐다. 안산시는 이 계획을 토대로 내년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대송단지는 그동안 환경 논란과 사업성 부족이라는 이중 부담 속에 진척이 어려웠다”며 “내년도 용역을 통해 현실성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개발 정상화의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20년 넘게 지역 숙원으로 남아 있던 대송단지 개발이 이번 로드맵 수립을 계기로 본격적인 재가동 국면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행남곡어촌계 ‘김 양식 품년 기원’ 초매식 개최

대부 행남곡어촌계와 행남곡 김양식 자활관리공동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김 양식 품년 기원’ 초매식(初賣式)이 12일 오전 10시, 경인서부수협 행남곡 물김 위판장을 바라보는 행남곡어촌공동센터 1층에서 열렸다. 이날 초매식에는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 박승경 행남곡어촌계장, 김충식 안산시 해양수산과장을 비롯해 지역 김양식 어업인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올 한해 풍어와 안전을 기원했다. 초매식은 김 양식의 첫 수확을 앞두고 풍년과 무사고를 비는 전통 행사로, 지역 어업인들이 매년 김 생산의 첫머리에서 정성껏 치러오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민근 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안산 주요 현안 정책 건의

신안산선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적극적인 협력 요청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안산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주요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민근 시장은 지난 11일 안산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반월국가산단 경쟁력 강화, 신안산선 연장, 선부

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등 안산의 현안 과제를 설명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으로 달달버스를 타고 이 시장과 함께 안산시 정책 현장 곳곳을 누볐다.

이 시장은 “안산이 경기 서남권의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며, 경기도와의 전략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월국가산단 녹지구역 비율 조정 ▲신안산선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등 현안을 제시하며 사업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월국가산단은 전국 최대 규모의 뿌리산업 집적지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밝히고, 산단 재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도 차

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신안산선 노선 연장과 관련해 “ASV와 첨단복합단지 등 미래 산업 벨트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장이 필수적이며, 반드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불법주차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차고지 조성이 시급하다”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재차 설명했다.

차담회 이후 이 시장과 김 지사는

경기도미술관, ASV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카카오데이터센터 등 현장을 방문해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현장 소통 간담회 ▲경기경제자유구역 ASV 지구 입주기업 간담회 등에 참석하며 안산의 미래발전 전략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시장은 “안산선 지하화는 71만 시민 모두의 숙원이며, 고가철도로 단절됐던 도심 중심부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도시 구조 전환의 결정적 계기”라며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단계별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

하고,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ASV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며 “송도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글로벌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성장했다, 안산은 AI·첨단 로봇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산업 패러다임을 재구성할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대부도저널 공정 감시단’ 단원 모집

대부도 주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지역의 공공시설, 도로의 불법점유, 과속통행
등을 조사·감시하는 대부도저널 산하의

·대부도저널 공정감시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책임감 있고 활동적이며 성실한 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기다립니다.

대부도저널 공정 감시단 문의 : 010-3199-4992

모집요강

- 모집대상
-책임감 있고 활동적이며 성실한 분
-지역 안전, 환경 감시에 관심이 많은 분
- 모집기간
-2025.11.20(목) ~ 마감 시 까지
{ 창립총회 }
일시 : 2025.12.15 월요일 오후 6시
장소 : 대부도저널 회의실 (3층)
- 모집인원
- 00명
- 지원방법
전화 (032-880-9994)
또는 온라인 접수 (dj250407@naver.com)

활동 및 혜택

- 활동
-대부도 지역 24시간 모니터링
-공공시설 및 도로, 하천, 공유지 및 사적 이익의 수단이 될 수 있는 행위를 감시
-불법투기, 불법행위 감시 및 기록
-언론 · 행정 · 사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바로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원혜택
-감시단 단원증 발부
-명함 발급
-대부도저널 공정 감시단 자동차 스티커 발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 대부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대부도. 우리가 지켜봅시다”

안산환경재단, 갈대습지 ‘미개방 구역’ 관리권 회복 근거 확보

20년 닫힌 빗장 열리나...
제수문 공동 관리까지...
생태계 회복 위한 행정경계
조정에 속도 붙을 듯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이 20년 가까이 접근이 막혀 있던 갈대습지 인근 미개방 습지 97,971㎡(약 3만 평)에 대해 안산시가 관리권을 되찾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지역은 ‘공유수면’으로 분류돼 화성시의 관리·감독을 받아왔으나, 재단의 최근 법률·지리 분석으로 관할권의 주체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핵심 논거는 ‘2023년 경기도 고시’다. 경기도는 시화호 상류 장전보에서 제수문까지의 구간을 기존 공유수면에서 ‘하천(동하천)’으로 변경 고시했다. 하천법 제2조는 지자체 행정경계를 ‘하천 최상선(가장 깊은 수로)’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단은 이 기준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지금까지 화성시 관할로 여겨졌던 동하천 좌측 미개방 습지가 안산시의 하천관리구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산환경재단이 이 문제에 집중한 이유는 습지 생태계의 핵심 요소인 ‘



물 주권’ 때문이다. 현재 습지에 물을 공급하는 제수문은 화성시 단독 관리 체계에 놓여 있어, 안산시는 필요할 때도 직접적인 물 공급 조절이 불가능하다. 재단은 “제수문이 닫히면 물 공급이 끊기고, 습지가 빠르게 육지화되며 갈대가 썩어 시화호 수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천 경계 정중앙에 위치한 제수문에 대해 안산시가 최소 50%의 관리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이 확보된 만큼, 공동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안산환경재단은 이번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미개방 습지를 ‘도심 속 DMZ’로 보전하고 생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향후 로드맵도 구상 중이다. 홍희관 대표이사는 “법적 근거와 실무 분석을 모두 마친 만큼, 이제는 안산시가 화성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지역 환경 전문가들 또한 시의 신속

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2026년까지 화성시가 추진하는 경기지방정원이 완공되면 사실상 해당 구역에 대한 영향력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그 전에 안산시가 권리 행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화성시는 해당 지역 관리권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두 지자체 간의 치열한 행정 협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겨울에도 따뜻하게! 안산 와~스타디움 트랙 비닐하우스 설치



안산 와~스타디움 트랙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12월 9일부터 내년 2월 초까지 동절기 시민 무료 러닝·걷기 공간 제공

안산도시공사는 겨울철 시민들이 안전하게 실외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산 와~스타디움 육상트랙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내년 2월 초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이달 9일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한파와 강풍 등 외부 날씨 영향을 최소화하며, 내부 기온 유지와 바람 차단 효과로 겨울철 러너들에게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와스타디움 육상트랙은 러너들을 위해 ▲평일 오전 6~9시, 오후 7~10시 ▲토요일 오전 6~9시 ▲일요일 오전 6~12시 무료로 개방

중이다. 다만 와스타디움 내 대관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방 일정은 안산도시공사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산 와~스타디움은 안산시를 대표하는 종합체육시설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이다. 특히 육상트랙은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개방되며, 러너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임하석 안산도시공사 체육처장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체육시설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욱 현장 중심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With us 한도병원 ‘2025 사랑애킴장 담그기 나눔행사’ 가져 “김장김치 5,000kg·라면 6,400봉,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

대의료재단 한도병원(이사장 성대영)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온정 나눔 활동을 펼쳤다. 한도병원은 12월 6일 안산시 선부동 한도병원 야외주차장에서 ‘2025 사랑애킴장 담그기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 5,000kg과 라면 6,400봉지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성대영 이사장을 비롯해 한도병원 임직원, 안산시스포츠클럽, 누리봄봉사단, 사회적협동조합 비전상생, 지역 자생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새벽부터 손을 맞잡았다. 강원도 영월군에서 절임배추와 무, 양념을 직접 구입해 배추 손질부터 양념 버무리기, 1,000박스 포장

까지 모든 과정을 참여자들이 함께 진행했다. 성대영 이사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 취약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김장 재료를 공급하는 농가에도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한도병원은 시민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도병원은 서해선 선부역 앞에 위치한 종합병원으로 2021년 9월 리뉴얼 개원 이후 최신 의료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을 기반으로 경기 서남부권 글로벌 선도병원을 목표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의료재단 한도병원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온정 나눔 활동을 펼쳤다. 한도병원은 12월 6일 안산시 선부동 한도병원 야외주차장에서 ‘2025 사랑애킴장 담그기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 5,000kg과 라면 6,400봉지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 수영장 건립 기공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10일 상록구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 수영장 건립 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만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본오1동 보노보노 난타팀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인사말, 축사,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실내 수영장 건립은 본오동과 팔곡동, 반월동 등 상록생활권의 늘어나는 체육시설 수요를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본오동 해란공원 내(990~8번지) 실내 수영장 건립에는 총 16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488.27㎡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실내 수

영장에는 수영장 25m 6레인, 어린이 풀 14m 2레인을 비롯해 다목적실과 키즈방, 관람실, 풋살경기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달 11월 착공에 들어간 이번 공사는 약 18개월 후인 오는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만근 시장은 “본오동 일대 공공 실내수영장의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과 공공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5 위원 활동 공유회 마쳐’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대표회장 방군섭)는 11일 오전 10시, 엠블던 호텔 오텔리아홀에서 ‘2025 위원 활동 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는 13기 위원들의 올 한 해 활동을 정리하고, 내년도 지속가능발전 비전 수립을 위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방군섭 대표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방 회장은 “136명의 위

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안산을 위해 꾸준히 실천해 준 덕분에 협의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며 “2026년 A-SDGs 비전 선포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시민·행정·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민 안산시 환경녹지국장과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이 축사를 통해 협의회의 꾸준한 실천 활동과 민·관

협력 기반이 지역 지속가능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13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2025년 활동을 각 담당 부위원장들이 발표했다. 발표는 환경위원회의 △국제연수 △텃밭식탁 소위원회 △안산생태탐험대 소위원회 △SDGs 달력 소위원회, 사회위원회의 △가족돌봄 소위원회 △상호문화 소위원회, 경제위원회의 △SDGs

RUN 소위원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위원회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안산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 안산미래연구원이 진행 경과를 발표했으며, 이어 참석자들은 ‘안산시 지속가능발전목표(A-SDGs) 슬로건 투표’에 참여해 시민 중심 목표 수립을 위한 의견을 보냈다. 행사 공식 일

정 이후에는 송년 오찬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이 한 해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협력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오는 2026년 1월 27일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당일 안산시지속가능발전

목표(A-SDGs) 비전 선포식도 함께 진행한다. 협의회는 비전 선포를 계기로 지역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구조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방송법·방통위설치법·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 과방위 통과… “방송 공정성 심의 폐지, 허위조작정보 근절 체계 구축” 김현 의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했다.

오전 11시부터 개최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김현)에서는 방송법에서 보도를 포함한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유폐할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과 그리고 공익적 비판을 위촉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금지하는 내용,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 심의 삭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서는 제32조의 제목을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 책임 심의’로 변경하고, 조문 내용에서도 ‘공정성’을 삭제했다. 특히 제33조제2항의 심의규정 대상 중 10호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서 ‘공

정성’을 삭제해 심의 기준을 재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방송 공정성 심의가 법적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석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성 심의가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된 바 있다. 따라서 공정성 심의를 제외하면서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심의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들 중 사회변화와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표현과 개념들을 수정·보완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 정의와 손해배상 강화,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 등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민희 의원안 등 총 27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마련된 것으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유통 금지를 중심으로 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익적 허위조작정보 유폐 시 손해배상 강화 △공익적 비판을 위촉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

(SLAPP) 금지 △대규모 플랫폼의 허위·불법정보 신고처리·계정 제재 등 자율규제 의무 부과 △반복 유통하는 게재자에 대해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등 디지털 환경에서 악의적 정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민주당은 지난 8월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위원장 최민희, 부위원장 김현·임오경, 간사 노종면), 총 7차례의 회의와 4차례의 토론회, 기자회견 등등은 물론 수십차례에 걸친 비공식적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법안을 정교하게 다듬어 왔다.

개정된 법률은 온라인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보도·제보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재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로 표현의 자유 보장

이번 개정안은 허위정보 규제 체계와 별도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처벌도 폐지했다. 또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전환해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만 형사절차가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형사규제가 정당한 표현행위나 공익적 제보·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진실한 비판과 공적 감시 기능은 보호하면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폐만 엄정히 제재하는 방향으로 형벌 체계를 합리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방송의 자유를 지키고, 온라인 피해자를 보호”...대한민국 방송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온라인 정보 생태계의 신뢰를 회복하며,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감시 기능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전면적 개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공정성 심의는 정권마다 정치적 논란을 불러온 대표적 불명확한 규정이었다”며 “이번 개정은 방송의 독립성과 자유를 지키고, 심의 기준을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중심으로 재정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과방위는 10일 심사와 의결을 마친 만큼,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김철진 의원, 경기도지사와 안산시 주요 현안 현장간담회 참석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은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안산 지역의 주요 현안 관련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김태창 기자

안산선 지하화·치유지원 미래산업 기반 구축 위해 안산 주요 현안 잇달아 방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안산 지역의 주요 현안 관련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안산선 지하화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참석해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초지역에서 고잔역을 지나 중앙역에 이르는 5.12km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총 1조 7,311억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만큼 안산시민을 넘어 경기도민의 관심도 큰 사업이며, 안산선 지하화로 인한 기대효과 역시 큰 상황이다.

김 의원은 “안산선 지하화는 단순히 선로를 땅속에 넣는 공사가 아니”라며, “안산의 신·구도심을 연결해 도시 균형 발전을 이끄는 차원을 넘어, 안산시의 새로운 미래 발전을 견인할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상부지를 활용한 공원·문화공간 조성, 도시미관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만큼 안산시민의 숙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중심행정에 안산시민의 의견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계부터 충분히 들어 경기도와 안산시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후 김 의원은 안산마음건강센터에서 진행된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유족과의 만남을 가졌다.

센터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해 심리 치료와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지속적인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며, “함께 아픔을 극복하고 안산이 생명존중의 안전 도시로 나아가는데 있어 센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신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이하 ASV지구)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ASV지구는 우수한 교통망, 산학연 혁신 역량 기반이 갖춰진 가운데 기업에 입지 혜택, 세금 감면 등 제도적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안산 경제의 핵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라며, “안산이 기존 제조도시를 넘어 미래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강태형 의원, 김동연 지사와 현장 대담자로 참석해 안산선 지하화-초지역 개발 통합 전략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1일 김동연 지사가 ‘달달버스’를 타고 안산을 방문해 개최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현장 소통 간담회’에 대담자로 참여해, 사업의 구조적 문

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총사업비 1조7천억~1조8천억 원, 사업기간 약 10년이 소요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대전·부산과 함께 국토부 공모 우

선사업자로 선정되며 국토부 종합계획 절차가 면제되고 경기도가 기본계획부터 전 과정을 주도하는 최초 사례다.

대담자로 나선 강 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임

에도 사업 구조의 취약성, 도-안산시 간 권한 불균형, 교차 회계보전에 따른 재정 위험, 초지역 역세권 개발과의 높은 구조적 연계성 등 해결해야 할 이슈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구 봉 도 앞

명품 바다뷰

◆ 탁 트인 바다뷰 ◆ 시원한 술발정원

◆ 운치있는 야외테라스 ◆ 반려동물 놀이터

◆ 최근 주방시설 및 인테리어 완비

* 70평 1층 식당

* 보증금 3,000만원 / 월 25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 전전세 잔여기간 39개월

김선중 공인중개사 ☎ 010-3199-4992

대부그라운드골프협회, 겨울철에도 즐기는 ‘사계절 생활스포츠’로 주목

안산시 대부그라운드골프협회(회장 배만석)가 대부동복지체육센터 내 축구장에서 겨울철에도 꾸준한 그라운드골프를 즐기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협회는 추위 지는 늦가을부터 겨울, 그리고 이른 봄까지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동을 진행하며, 봄·여름·가을에는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활동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차가운 아침 기온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오전 운동을 피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부그라운드골프협회의 지속적인 활동은 겨울이 되면 플레이가 어렵거나 예약이 많은 파크골프와 비교되며 그라운드골프의 장점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라운드골프는 일반 골프나 파크골프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클럽 하나와 볼 하나만으로 경기를 즐길 수 있어 접근성



대부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는 대부동복지체육센터 축구장의 모습이다. 이곳에서 스타트매트와 홀포스트를 놓고 운동을 즐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 높다. 한 코스는 8홀로 구성되며 홀 길이는 15m 2개, 25m 2개, 30m 2개, 50m 2개로 이루어진다. 경기 방식은 홀포스트 안에 볼을 넣으면 성공하는 방식인데, 직경 36cm의 홀포스트는 파크골프 홀컵(20cm)

보다 크지만 바닥에 구멍이 없어 정교한 퍼팅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그라운드골프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대부그라운드골프협회 총무(010-3205-6482)에게 문의하면 된

다. 협회는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로 자리 잡아가며 사계절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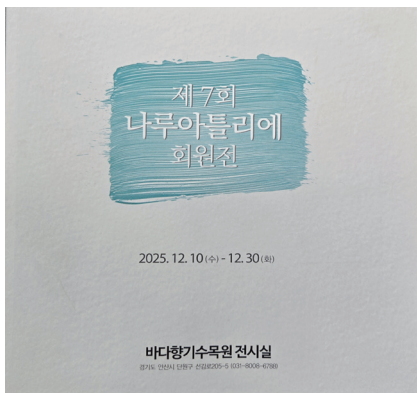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 예술혼이 피어나다... ‘제7회 나루아틀리에 회원전’ 개막

대부도에서 활동하는 미술 동호인들의 한 해 창작 결실을 모아 선보이는 ‘제7회 나루아틀리에 회원전’이 12월 10일부터 30일까지 바다향기수목원 전시실에서 열린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에 자리한 전시장은 겨울 숲의 고요함과 바다의 향기를 동시에 품은 공간으로,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다. 이번 전시에는 강정숙, 고은서, 김경희, 김용현, 김민숙, 김종국, 김필요, 백지연, 우연아, 유명조, 유미상, 이미자,

이진행, 임현오, 정경훈, 최영미, 한필연, 한혜자 등 총 18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나루아틀리에 대표인 김용현 작가를 비롯한 회원들이 지난 1년 동안 갈고닦아온 작품들은 회화, 공예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대부도 지역 특유의 자연 감성을 담아냈다. 전시는 단순한 작품 나열이 아니라, 대부도 예술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온 시간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이기도 하다. 나루아틀리에에는 “아름다운 자연의 숨결을 품은 바다향기수목원 갤러리에서 우리의 작품이 관람객들에

게 작은 울림과 휴식을 선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일곱 번째 전시가 가능했던 것은 회원들의 꾸준한 열정과 지역 사회의 따뜻한 응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대부도의 예술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말, 자연과 예술이 흐르는 공간에서 대부도 지역 작가들의 생생한 창작 에너지를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깊은 여운과 따뜻한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바다향기수목원 전시실은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205-5(031-8008-6788)에 위치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동에 울려 퍼지는 색소폰 선율... 지역 문화 살리는 주민자치 강좌”

색소폰이 주는 마을 공동체 대부동 자치회 강좌 활기

대부동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색소폰 강좌가 지역 문화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대부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강좌는 총 3시간 수업으로 구성되며, 현재 약 15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다. 하정호 강사는 색소폰 전공 18년, 강의 경력 8년의 베테랑으로, 특히 어르신 교육에 자신감을 보이며 취미 기반의 실력 향상을 목표로 수업을 이끌고 있다. 강좌는 단순한 취미교실을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문화활동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는 대부동 내 경로당, 요양원, 장애인시설을 찾아가는 위문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각종 마을행사에서도 축하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달 19일 오후 5시에는 노을지기카페에서 송년연주회가 열려 그간의 배움을 지역 주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추가로 약 5명의 신규 인원을



대부동주민자치회가 운영하고 있는 색소폰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하정호 강사의 모습과 배우고 있는 회원들의 모습이다. 대부문화센터에서 2일 오후 색소폰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모집 중이며, 참여자가 늘어날 경우 초급반·중급반으로 나뉘 체계적인 교육도 가능하다. 다만 색소폰은 개인 소지해야 하며 강좌 비용은 월 1

만5천원으로 부담을 최소화했다.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이번 색소폰 강좌는 주민들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음악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이

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동 63년생 친목모임 ‘친사모’ 저소득층 위해 쌀 40포 기탁



안산시 대부동 친목 모임 ‘친사모’가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김태창 기자

“이웃에게 온기 전해요” 친사모, 사랑의 나눔 실천

안산시 대부동 친목 모임 ‘친사모’(친한 사람들의 모임, 회장 유재웅)가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대부동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친사모는 최근 140만 원 상당의 쌀 10kg짜리 40포를 기탁하며 소외계층의 겨울나기에 힘을 보탰다. 친사모는 대부동 63년생 주민 27명이 구성된 친목단체로, 이번 후원 물품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마련한 것이다.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자 하는 마음이 모여 이번 기탁으로 이어졌다. 전달된 쌀은 대부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배부될 예정이다. 유재웅 회장은 “작은 정성이나마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의미 있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봉순 대부동장은 “친사모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친사모의 기탁은 나눔의 온기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더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대부도에서 가장 강한 파크골프 클럽, 황금클럽 상전례 마쳐

안산시파크골프협회(회장 이동오) 황금클럽(클럽장 윤주환) 상전례 및 송년회가 12월 11일 낮 11시 30분, 화정식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는 전체 회원 47명 중 24명이 참석했다. 윤주환 클럽장은 인사말에서 “열심히 황금클럽을 키우고 다져서 대부도에서 제일가는 클럽으로 만들겠다”면서 “우리 클럽은 본회 클럽 가입이 원칙이고 각종대회에도 출전할 계획인 만큼 여러분께서는 파크골프를 즐기면서 적극 참여해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이한기 본회 상임고문과 한기복 본회 자문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클럽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잘 정리되고 있다”며 “이제 과거는 잊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해 만들어서 클럽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각자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일정으로 총회날짜를 잡아 진행하기로 했으며 점심을 함께 나누며 서로 대화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동 통장협의회, 강화도 연수 개최

단원구 대부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9일 강화도 일원에서 연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강화도의 유려한 자연환경과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통장 간 소통을 강화하고, 대부동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장들은 올해 대부동 마을별 운영 상황을 돌아보고 대부동의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으며, 일상적인 공간을 벗어난 만큼 통장 간 대화도 자유롭고 깊어져 지역 현안 해결 방안과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한층 단단해졌다. 정다운 기자

“자연·예술·향을 엮는 사람” 대부도의 숨은 보석, 한란(寒蘭) 예술가 박병옥을 만나다

안산 대부도에서 이처럼 귀한 전문가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다. 난(蘭)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공간을 무료로 개방해, 난초를 함께 감상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배울 수 있는 곳. 그 중심에는 한란(寒蘭) 재배와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난예술가 박병옥 작가가 있다.

박병옥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한란을 소장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미술과 서예에도 깊은 조예를 갖춘 예술인이다. 그는 “난초는 단지 식물이 아니라 자연의 향기와 예술적 감성을 품은 하나의 작품”이라고 말한다.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장소가 바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983에 위치한 ‘금향난농원 內 갤러리 한향’이다. 이곳은 난초 애호가라면 언제든 찾아와 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특히 겨울에 피는 상록 난초인 한란은 제주도 등에 자생하며 은은하고 깊은 향을 가진, 말 그대로 ‘숨은 보석’ 같은 식물이다. 이러한 한란을 중심으로 한 재배·전시 행사인 ‘한란대전’은 박병옥 작가의 손끝에서 더욱 특별함을 갖는다. 자연의 향, 고요함, 예술적 연출이 조화된 전시 공간은 관람객들에게 단순한 식물 감상을 넘어선 감성적 경험을 제공한다.

올해는 “향기로 말을 거는”이라는 주제로 제4회 박병옥 한란전이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열리고 있다. 전시장의 문을 여는 순간, 겨울 한란의 짙은 향에 취해 시간이 멈춘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박 작가는 “그동안 짧은 기간 전시



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찾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며, 한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고자 올해는 한 달간 전시 기간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취재 과정 내내 기자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고민이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귀한 문화·예술 자원을 어떻게 하면 안산시와 대부도에 널리 알릴 수 있을까?’

대부도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이토록 훌륭한 전문가가 지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레고 자랑스럽기 그지없었다.

박병옥 작가의 전시는 단순한 난 전

시가 아니다.자연이 주는 향기, 식물의 생태적·미적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적 감성을 결합한 복합 감각 체험 공간이다.난을 좋아하는 사람뿐 아니라 예술과 자연을 즐기는 누구에게나 깊은 울림을 주는 전시다. 또한 ‘판매’보다 ‘감상과 사색’을 중시해 관람객들이 조용히 머물며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아쉬움도 있다.박 작가의 폭넓은 재능과 대규모 난 보유량에 비해 대중적 접근성과 지역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란을 사랑하는 마니아뿐 아니라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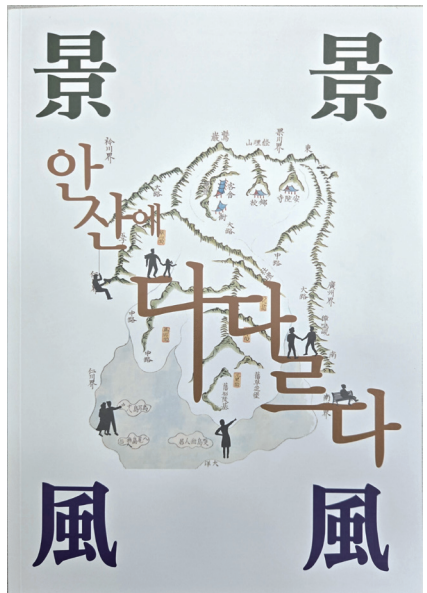
반 시민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산시와 대부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문화·관광 자원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박병옥 작가는 대부도가 보유한 귀중한 자연·예술 콘텐츠의 핵심 인물이다.조금만 관심을 쏟는다면 대부도는 사계절 내내 향기와 예술이 머무는 새로운 문화 명소가 거듭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변함없이 묵묵히 한란을 가꾸고 예술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다.

바로 한란 예술가 박병옥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제1회 안산 스케치 여행 ‘경경풍풍’ 안산의 풍경과 호흡으로 다다르다



도시와 바다가 공존하는 안산의 지리적 감수성을 예술로 풀어낸 전시가 열린다. 사단법인 안산미술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제1회 안산 스케치 여행 - 景景風風(경경풍풍) : 안산에 다다르다' 전이 12월 10일부터 27일까지 김홍도미술관 제1관에서 열린다.

서울, 의왕, 안양, 군포, 성남, 하남, 포천, 구리,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150명의 작가가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시화나래공원과 구봉도, 유리섬박물관, 탄도항, 누에섬 등대전망대, 어촌박물관 등 안산의 명소를 직

접 여행하며 스케치를 완성했다.

이번 전시의 핵심 개념인 ‘경경풍풍’은 ‘경과 경, 풍과 풍이 겹쳐 드러나는 풍경 속 풍경’을 의미한다. 작가들은 장소에서 마주한 빛과 바람, 소리, 공기의 감각을 느낀 매체인 스케치로 담아내며, 단순한 대상 재현을 넘어 순간의 밀도와 체감을 작품에 각인한다. 특히 대부도의 풍경이 많은 작가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어, 전시 작품 중 상당수가 대부도를 소재로 한 스케치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조선후기 안산에서 활동하며 풍속화와 풍경화를 그렸던 김홍도의 역사적 유산 또한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한 축이다. 김홍도의 시선이 깃든 도시 안산을, 현대 작가들이 다시 여행하며 새롭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예술적 지층을 보여준다.

김영구 안산미술협회 회장은 “안산의 장소성을 몸으로 느끼고 작품에 담아낸 참여 작가들의 긴 여정이 고스란히 전시에 녹아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도시와 자연, 그리고 예술의 만남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전시로 기대를 모은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문화재단 ‘2025 안산시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성과 공유 박람회 개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태훈)은 오는 1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에서 안산시 문화자치 성과 공유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1년차로 추진된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은 ▲문화자치 네트워크 구축 ▲시민특강 ▲전문인력 양성 교육 ▲문화도시 벤치마킹 ▲‘안산시 문화자치’ 개념 정립 연구용역 ▲성과와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MOOK지 『문화자치도시 안산』 발간 등을 통해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박람회는 안산 시민과 문화예술인, 안산시가 함께 만들어진 문화자치의 과정과 결실을 담아내며, 시민들이 직접 구상하고 표현한 문화의 밑그림을 선보이는 자리다.

주요 내용은 ▲문화자치의 의미와 핵심 키워드를 시각적으로 소개하는 문화자치 개념 소개 및 키워드 클라우드, ▲지역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6개 마을의 사례 전시, ▲지역의 특색을 담아낸 지역특화 예술창작 전시,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안산시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공유 등으로 구성된다.

안산문화재단 관계자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그 설레는 순간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번 박람회는 안산시가 그려온 문화자치의 여정을 시민과 함께 확인하고,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 032-880-9994

고려인동포 아이들, 축구로 세상과 다시 연결된다



언어는 서툴지만, 꿈만큼은 또렷한 아이들이 있다. 안산의 한 운동장에 모인 고려인동포 아동·청소년들은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카자흐어 등 서로 다른 언어로 외치며 공을 향해 달린다. 하지만 공이 굴러가는 순간, 이들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하나의 팀이 된다. 학교에서는 한국어 이해가 어려워 수업을 따라가기 벅잡지만, 축구 앞에서는 누구보다 눈빛이 밝아진다. 아이들이 “우리는 진짜 팀 같아요”라고 말하며 서로 손을 잡고 뛰는 모습은 이 팀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 축구는 이들에게 대화의 도구이자 세상과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고 있다.

팀을 이루는 아이들 대부분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에 들어온 고려인동포 청소년들이다. 입국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도 있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집에서는 러시아어만 사용해 한국어가 서툰 아이도 있다. 대안학교에서 공부하거나, 공립학교에 다니지만 수업 내용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도 많다. 그러나 운동장에 서는 순간, 이 아이들은 누구보다 당당해진다. 어제의 어려움도, 오늘의 걱정도 내려놓고 순수한 열정으로 공을 차며 스스로를 증명해 보인다.

전문 코치의 지도 아래 아이들은 드리블과 패스 같은 기본기뿐 아니라 협력의 가치를 배우고 있다. 지역 대회에 참가할 때에는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라고 말한다. 함께 움직이고 서로를 믿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는 얻기 어려운 성취감을 준다. 국적이나 언어 때문에, 또는 기회가 없어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던 꿈을 다시 붙잡게 되는 순간들이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많아 클럽 회비나 유니폼, 대회 참가비를 마련하기조차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은 동네 운동장에서 공 하나로 꿈을 이어가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이 아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잘 알고 있다. 작은 지원만으로도 아이들은 다시 전국무대를 향해 뛸 수 있다.

후원금은 후원비, 유니폼 및 훈련복, 대회 참가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또 한 명의 아이가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돕는 힘이 된다. 참여 또는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피빈(happybean.naver.com)을 통해 응원할 수 있다.이들의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또 한 번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2025년 안산시 체육인의 날 행사 성황리 개최

안산시체육회(회장 이광종)는 12월 9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2025 안산시 체육인의 날’ 행사를 성대히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안산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체육인들을 격려하고, 그간의 성과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김철진·이은미 경기도의원, 이진분·황은하 안산시의원, 그리고 종목단체 회장 및 동체육회 회장 등 지역 체육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안산시 체육의 눈부신 발전을 함께 축하하며, 체육인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행사에서는 체육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장이 수여되었으며, 한 해 동안 눈부신 성과를 거둔 선수와 지도자, 단체를 격려하는

안산시체육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안산시체육상 최우수선수 및 최우수지도자 학교운동부 부문에는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이민혁선수와 심재형 코치, 직장운동부 부문에서는 김경미 선수와 이현수 감독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안산시유도회가 우수단체상, 안산시수영연맹이 최우수단체상, 그리고 안산시육상연맹이 체육대상을 수상하며 단체 부문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올렸다.

이광종 안산시체육회장은 “올 한 해 안산 체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체육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시민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행복을 느끼고, 안산 체육이 더 높은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안산지회, 대부동에 후원



단원구 대부동 행정복지센터는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안산지회(회장 김진석)로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난해 150만원 상당의 이불세트 후원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한 것으로, 협회는 약 70명의 회원이 활동하며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진석 회장은 “이번 후원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

작된 작은 나눔”이라며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희영 지사협 위원장은 “취약계층을 위해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후원금은 꼭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장봉순 대부동장은 “어려운 시기에 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고잔동 지사협, 사회적 고립 예방 위한 문화체험



단원구 고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일 단독가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 및 키오스크 체험 등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자들은 영화 관람으로 오랜만에 여가 활동을 즐기며 정서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진행된 키오스크 실습에서는 영화관 무인 발권기 사용법을 단계별로 배워 실제로 티켓을 발권해 보는 경험을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적 활동 능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

가 있었다.

고재형 지사협 위원장은 “사회적 고립을 겪는 중장년층이 외부 활동을 통해 관계망을 회복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고잔동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선부1동 안산시 슈퍼마켓협동조합 컵라면 후원



단원구 선부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선부1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신길 위원과 안산시 슈퍼마켓협동조합(대표자 송홍철)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컵라면 200박스를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물품은 관내 저소득 가정, 독거 어르신,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과 경로당에 배부될 예정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신길 주민자치위원은 “연말을 맞

아 지역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협동조합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홍철 안산시 슈퍼마켓협동조합 대표도 “지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은혜 선부1동장은 “기탁받은 물품은 필요한 대상자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소라어린이집, 본오2동에 야시장 수익금 기부



상록구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본오동에 있는 소라어린이집(원장 윤병순)으로부터 후원금 55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지난 11월 소라어린이집 원생 및 학부모 120여 명이 운영한 야시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소라어린이집은 어려울때부터 경제를 알고 돈의 가치도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해온 어

린이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윤병순 원장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나눔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웃들에게 온기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현우 본오2동장은 “아이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jdudju000@nate.com

월피동 평안교회, 취약계층에 100만원 후원



상록구 월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월피동 소재 평안교회(목사 정동수)로부터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평안교회가 자체 운영 중인 무인카페의 수익금 일부로 마련됐으며,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평안교회는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온 교회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정동수 평안교회 목사는 “월피동 통

장들과 주민들께서 무인카페를 적극 홍보하고 이용해 주신 덕분에 모인 수익금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 따뜻하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만 월피동장은 “어려운 시기에 후원금을 전달해 주신 평안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후원금이 꼭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호수동, 경로당 12개소 방문 감사 인사와 건강 기원



단원구 호수동 행정복지센터는 호수동장이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관내 경로당 12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김미정 호수동장은 준비한 음료를 전달하며 한 해 동안 어르신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렸고,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답소를 나눴다.

지난 1월 호수동장에 부임한 김미정 동장은 경로당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를 위한 오찬 행사를 비롯해 경

로의 달 감사 인사 등 동 단위 여러 행사에 어르신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독려하며 현장 소통을 강조했다.

경로당의 한 노인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관심을 두고 찾아주신 동장님께 감사드리며, 지역의 어른으로서 젊은이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정 호수동장은 “올 한 해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어르신 가정마다 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대부도저널

“ 운영위원 ” 을 모십니다 !



대부도저널은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입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대부도와 안산시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언론을 꿈꾸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 우리 대부도와 안산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함께 하실 분은 연락 주십시오.

대표전화 : 032-880-9994
핸드폰 : 010-4900-4152 (김태창 편집국장)

대부도저널



법률사무소 화정
PARK & KIM LAW OFFICE

깊이 듣고, 끝까지 함께 합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박태훈 대표변호사

연락처 : 010 - 7929 - 8012

약력 및 경력

現) 법률사무소 화정 대표변호사
現)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고문변호사
現) 경기도 운수연수원 외 다수법인체 법률고문변호사
現)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

前) 경기도 경찰청 민간교통심사위원회 위원장
前)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前)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前)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前) KT 고문변호사
前) 서울마주협회 고문변호사
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 상임이사 및 24회 동창회장
前)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지역부총재, 법제위원장, 감사
前)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및 법과대학 상임이사

변호(담당) 전문 분야

◆ 형사 소송
▶ 성범죄(강제추행, 유사강간등) 명예훼손(사자) 및 모욕
▶ 강력범죄(상해, 폭행치상), 재산범죄(사기, 횡령, 보이스피싱 등)
▶ 학교폭력(정보망 허위사실유포 등) 및
중대재해법(기업 및 법인 포함)
▶ 도로교통법 위반(뺑소니, 음주운전) 사건-해양포함

◆ 형사 소송
▶ 대여금반환청구,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신청
가압류가처분, 각종 기업소송 및 자문
▶ 중대 교통사고(손해사정)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물·인적)
※운전자보험(변호사 방어비용 선입) 및 면허행정소송 등

◆ 행정 소송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증액(감액),
면접고섭변경신청,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 자문
▶ 공무원행정소송 등

광 고 문 의

032 - 880 - 9994 dj250407@naver.com

대부도저널

프리미엄 선물용 타올
맞춤제작, 로고자수, 감성포장
KC인증/OEKO-TEX 1등급, 유아안전인증

1. 행사 답례품: 기업, 관공서, 학교, 교회
2. 숙박업 호텔 리조트용, 가정 생활용

J&CROSS 대표 최재원 M:010.7259.2177

*** 주 택 급 매 ***

대부남동 흥성리
대지87평 도로13평 건물17평
주택완공조건

현재시세 ~~3억3천~~ **반값** ~~1억7천~~에 급매

김선중 공인중개사 M: 010.3199.4992

수영복 · 수영용품 · 헬스복 · 헬스용품

GRAND OPEN

웨이브핏
경기 시흥시 거북섬중앙로 1, 2동 2층 239호
매장 운영시간 : 화~일 09:00 ~ 19:00

대부도핫플
오션뷰 브런치카페
카캉스

조재숙 M: 010.2492.1800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길로 1501-1

히든 펜션
최은숙

안산시 단원구 대호1길 19 M : 010.9913.8956

전 객실 바다전망 테마가 있는 유럽풍 펜션

아테네펜션

차준경 M: 010.5353.2755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622-5

미래기획

25년 경력 간판. Led채널. 현수막. 씬팅. 현수막

이 병 철 M: 010.9366.9699

행정사사무소

박정탁 M: 010.2378.71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한주토목측량설계공사

김장식 M. 010.5345.98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40-1 (대부북동)

최욱진 세무회계사무소

최욱진 T: 031.8042.6670

안산시 상록구 28,201호(본오동,보노피아빌딩)

선재낙시공원

조부형 T. 032-710-4340

대부도 바움펜션

황진 M. 010-7741-1150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유재용 M. 010.3433.46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GS25 대부포도점

빈호준 M. 010.9220.20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132(대부남동), 202호

말부흥 어촌계

계장 신준선 M. 010.7340.5511

K3 바다낙시터

최병희 T. 032-885-522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3-35

용담바다낙시터

오준태 T. 032-886-8969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용담바다낙시터

등대바다낙시터

이한중 T. 0507.1331-134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87-4

리라조경

박용복 M. 010.3703.93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재로 34번길 23, 103호

(주)대동토지개발

양금순 M: 010.8722.5095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33, 118호

규현공방

수족관 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조규현 M: 010.4071.2797

웅진군 이장 연합회, 이장 역량강화 직무워크숍

웅진군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포천시에서 ‘2025년도 이장 역량강화 직무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웅진군 이장 연합회(회장 배복봉)의 주관으로 개최된 워크숍은 이장 및 군수,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민과 관의 가교역할로서 활약하는 이장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마술 활동과 함께하는 이윤미 강사의 “우리 마을, 우리 손으로 지키는 청렴”강의를 통해 이장의 직무를 이해하고 마을 발전과 주민 선도를 위한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웅진군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포천시에서 ‘2025년도 이장 역량강화 직무워크숍’을 개최했다.

정다운 기자

배복봉 연합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서지역 특성상 자주 뵈지 못하는 다른 면의 이장님들과 소통과 화합의 장을 가질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웅진군 이장 연합회로 거듭나 새로운 웅진군, 신나는 웅진군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경복 웅진군수는 “군정의 최일선에서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들

의 현안사항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님들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웅진군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웅진군협의회 탄소중립 실천 교육 및 바르게살기운동 활동보고회 개최



웅진군은 지난 11일, 영흥면 늘푸른센터에서 ‘탄소중립 실천 교육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태창 기자

웅진군은 지난 11일, 영흥면 늘푸른센터에서 ‘탄소중립 실천 교육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철호 회장을 비롯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2025년 활

동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활동 계획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철호 바르게살기운동 웅진군협의회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내 환경정화활동과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군민과 함께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해 왔다”며, “2026년도 탄소중립 실천 확산과 더불어 사

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경복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실천과 봉사가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되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방법에 대한 교육과 함께 2025년 활동 성과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내년도 사업 방향에 대한 공유 시간도 마련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202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웅진군은 지난 10일, 웅진군청 효심관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사회를 조성하기 위

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인천생명의전화 인권교육센터장 이요한 강사를 초빙하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에티켓,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법적 이해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이해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직원들의 공감과 이해

도를 높이며, 직장 내 포용적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문경복 웅진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공직사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웅진군은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재 기자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과 함께하는 사람들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우리은행 선부동지점
우리은행 안산금융센터
우리은행 안산남지점
우리은행 상록수지점
우리은행 안산외국인특화지점
해너미마을옹보관 구경호 본부장
경기도청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언론홍보담당관
웅진군 기획감사실 홍보팀
웅진군의회 의회사무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기획국 광고지원팀
보은용사존(주)전략사업소
보은용사회

김 현 국회의원
박해철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양문석 국회의원
선현우 시의원
강태영 도의원
김동규 도의원
김태의 도의원
김철진 도의원
장운정 도의원
이은미 도의원
대부동 동장
그랑포도와의너리
나라캠핑장
안산제일로타리클럽

웅시
화정식당
애신마린
서울안심치과
포도나무공인인증가사
대한측량설계사무소
대부명성한의원
럭키알인마트
명성종합토건
중현어촌체험휴양마을
그린건축사
왕금남시티
이조갈비
왕금목장
G 마트

김선중	김민영	공미숙	차준경	유재용
유강민	김민정	이재선	오준태	빈호준
이정숙	김건민	김국진	김관중	정병국
문기정	양임배	오성숙	양금순	웬트언나
박영철	모연구	김용현	이병철	
김영란	문상필	이한기	조규현	
이길재	김경희	김시경	박정탁	— 끝 —
이상성	유재용	이승용	박용복	
박익자	김중윤	정안순	조재숙	
임원섭	김영덕	김혜순	김장식	
정순미	백무자	장해연	신준선	
김철중	강영복	이승창	최옥진	
박익락	송원영	박연배	조기열	
정잔빈	이지연	이한중	왕 진	
채만식	이정임	최병희	조부형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앞둔 안산사이언스밸리 찾은 김동연

“ASV를 중심으로 안산의 산업지도, 경기도 경제지도가 바뀔 것”

11일 22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안산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찾은 안산시 산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 함께한 이민근 안산시장, 한양대학교 관계자, 경기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등 산·학·연 주요 기관 관계자들은 카카오네이터센터에서 사업 현황 동영상 시청과 브리핑을 듣고, 입주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가 예측하기로는 이달 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경제구역 지정을 할 것 같다. (지정이 되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면서 “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에 옮기겠고, 가능하면 공기를 당기겠다. 필요하다면 기업 유치도 경기도가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안산의 산업지도가 바뀌고 경기도의 경제지도가 바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안산시를 인구는 늘고, 젊은 청년들 많이 들어오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한 김 지사는 “개별 기업 지원도 중요하지



11일 오후 안산 사이언스밸리지구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 ASV지구 입주기업 현장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만,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생산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간접적인 인력 조달까지 포함해서 (산업)생태계 조성에 가장 신경을 쓰겠다.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산사이언스밸리(ASV)는 안산시 사동 일원 1.66㎢(약 50만 평) 규모 부지에 조성되며, 2025년부터 2032년까지 4,105억 원이 투입된다. 핵심 전략산업은 첨단로봇과 제조이며, 한양대 ERICA, 경기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등 산·학·연 기반이 집적된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글로벌기업 유치를 전망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능해지며, 전통 제조업 중심 반월·시와 국가산단의 디지털 혁신 전환이 기대된다.

도는 지난 2022년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개발계획 수립, 투자유치, 산업부 협의 등을 3년간 준비해왔다. 수도권 규제로 신규 지정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안산시·한양대학교와 계획을 구체화해 올해 9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

으며, 12월 말 산업부 고시를 앞두고 있다.

도는 2032년까지 ASV를 글로벌 R&D 기반 첨단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 생태주기 전반(창업-기술개발-생산-사업화-판로)을 지원하는 ‘AIKing(에이아이킹)’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ASV가 본격 조성되면 2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 1만 2천여 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며, 경기도 신성장 동력 확보와 글로벌 첨단산업 중심지로서의 도약이 전망된다. 김태창 기자

김진경 의장, 경기도 중고차 딜러 협회 등과 매매 전문 자격제 논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경기열 전 도의회 의장과 면담하고, 경기도 중고차 매매 전문 자격제도(라이선스) 도입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9일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경기열 전 도의회 의장과 면담하고, 경기도 중고차 매매 전문 자격제도(라이선스) 도입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김지호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장, 정 전 의장으로부터 ‘경기도 중고차 시장 실태조사 및 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를 전달받고, 중고차 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무자격 브로커, 허위·과장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체계적 교육 부재 등 중고차 판매 시장에 여러 구조적 문제가 불거져온 가운데 중고차 판매업에도 라이선스

를 도입, 시장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의 등록제만으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무자격자 난입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공인중개사 제도처럼 중고차 분야에도 라이선스를 도입해야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제안을 적극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김동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안산이 가장 경제성 있어 꼭 만들겠다”

안산에서 22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안산시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안산시 초지동 경기도미술관에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주민 간담회를 개

최했다. 간담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경기도의원, 안산시의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동연 지사는 “철도지하화 선도시안, 부산, 대전이다. 그중에서 안산이 가장 경제성이 있다”며 “안산의 미래가 보인다. (철도지하화 사업)안산

시와 함께 꼭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이 심의 중이다. 법 개정안에 경기도시공사나 안산도시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안이 잘되도록 힘을 합쳐 주시면 좋겠다”면서 “공사에 있어서 첫 번째가 안전이다. 안전사고 없도록

처음부터 아주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초지역부터 고잔역을 거쳐 중앙역까지 5.12km 구간에 걸쳐 진행되며, 약 1조 7,311억 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1994년 개통 이후 약 40년 동안 안산 시민의 핵심 교통축이었던 4호선 지상 철길

을 2034년까지 지하화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안산선이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시안으로 선정된 이후, 안산시와 협력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을 지난 9월 안산시와 체결했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현재 계약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연금개혁으로 달라지는 국민연금 한눈에 보기

1 연금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9%

2026년부터 1년에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

13% 개혁안

2 소득대체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40%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부터 적용

43% 개혁안

3 지급보장을 명문화 합니다.

국가 지급보장

4 크레딧 제도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군복무 크레딧

최대 12개월 인정

출산 크레딧

첫째아부터 적용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2026년 1월 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됩니다.



“대구도에서도 이제 안심하고 치과 치료받는다”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치과, 서울안심치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이유



안산시 대부도 상동에 자리잡고 있는 서울안심치과원의 전경이다. 접수부터 치료 전 상담까지 직원들의 응대가 매우 친절하고 최신 시설과 젊은 치과 전문의들이 상주하는 병원, 그리고 환자를 중심에 둔 진정성 있는 진료.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어 대부도 주민들도 믿고 찾겠다는 치과원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언제까지 대구도를 떠나 서울이나 안산까지 치과를 다녀야 할까?”

대부도 주민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고민이다. 치과 치료는 작은 문제도 방치하면 큰 고생으로 이어지는 만큼 더욱 신중해지기 마련이다. 저 또한 그동안 서울 봉천동의 유명 치과를 1년에 몇 번씩 오가며 치료를 받아왔다. 집에서 멀어도 ‘믿고 갈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대구도에는 안심하고 맡길 만한 치과가 없다는 아쉬움을 늘 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 한 분이 갑자기 치통이 생겨 대구도에 새롭게 생긴 서울안심치과를 다녀온 뒤 극찬을 쏟아냈다. 그 지인은 서울의 대학병원까지 다니는 사람이었기에 더욱 궁금증이 생겼고, 마침 나도 서울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던 부위에 통증이 생겨 그동안의 고민을 접고 서울안심치과를 방문해 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익숙한 서울 치과가 낯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병원 문을 여는 순간 그 편견은 단번에 사라졌다. 넓고 포근한 분위기, 깔끔하고 정돈된 내부, 병원 특유의 냄새조차 느껴지지 않는 쾌적함이 긴장감을 스르륵 풀어주었다. 이름처럼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첫인상이 강했다.

접수부터 치료 전 상담까지 직원들의 응대는 매우 친절했다. 급하게 예약을 문의했음에도 상황을 세심하게 듣고 가능한 시간대를 찾아 배려해주는 모습에 이미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다. 대기 중에는 시흥에서 일부터 찾아왔다는 여성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놀랐다. “대구도까지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온다니?”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그는 지인의 추천으로 방문했다며 “이곳만한 치과가 없다”고 말했다.

치과 내부를 둘러보니 서울의 대학병원 수준으로 갖춰진 고급 장비들이 눈에 띄었다. 디지털 장비, 정밀 진단 기기 등이 잘 구축돼 있어 ‘대구도에

이런 치과가 있었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원장님이 불편한 증상부터 생활습관까지 차근차근 질문하며 진단을 이어갔다. 설명도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들려주어 신뢰감이 배가됐다.

특히 치과 치료 특유의 공포감을 덜어주는 섬세한 배려가 인상 깊었다. 치료 과정마다 “지금 어떤 단계이고, 혹시 불편한 곳은 없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주며 진행해 심리적인 부담이 크게 줄었다. 마취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부드럽게 진행돼 치료 내내 편안했다. 무엇보다 치료 시간이 생각보다 짧고, 통증도 적어 ‘왜 진작 이곳을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까지 들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임플란트를 했던 부위에 금이 가 발치까지 하게 되었는데, 서울안심치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세밀한 설명을 듣고 다음 주에 새로운 임플란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서울까지 오가며 소비했던 시간과 비용, 불편함을 생각하면 ‘이제는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대부도 주민들에게 서울안심치과의 존재는 단순한 의료기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지역에 부재했던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치과, 최신 시설과 젊은 치과 전문의들이 상주하는 병원, 그리고 환자를 중심에 둔 진정성 있는 진료.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어 대구도에서도 충분히 수준 높은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대구도 주민들은 치과 치료를 위해 하루를 온전히 소비하며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다. 가까운 곳에서, 믿을 수 있는 의료진에게, 보다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큰 행복이 또 있을까. 대구도에서 치과를 찾는다면, 서울안심치과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선택지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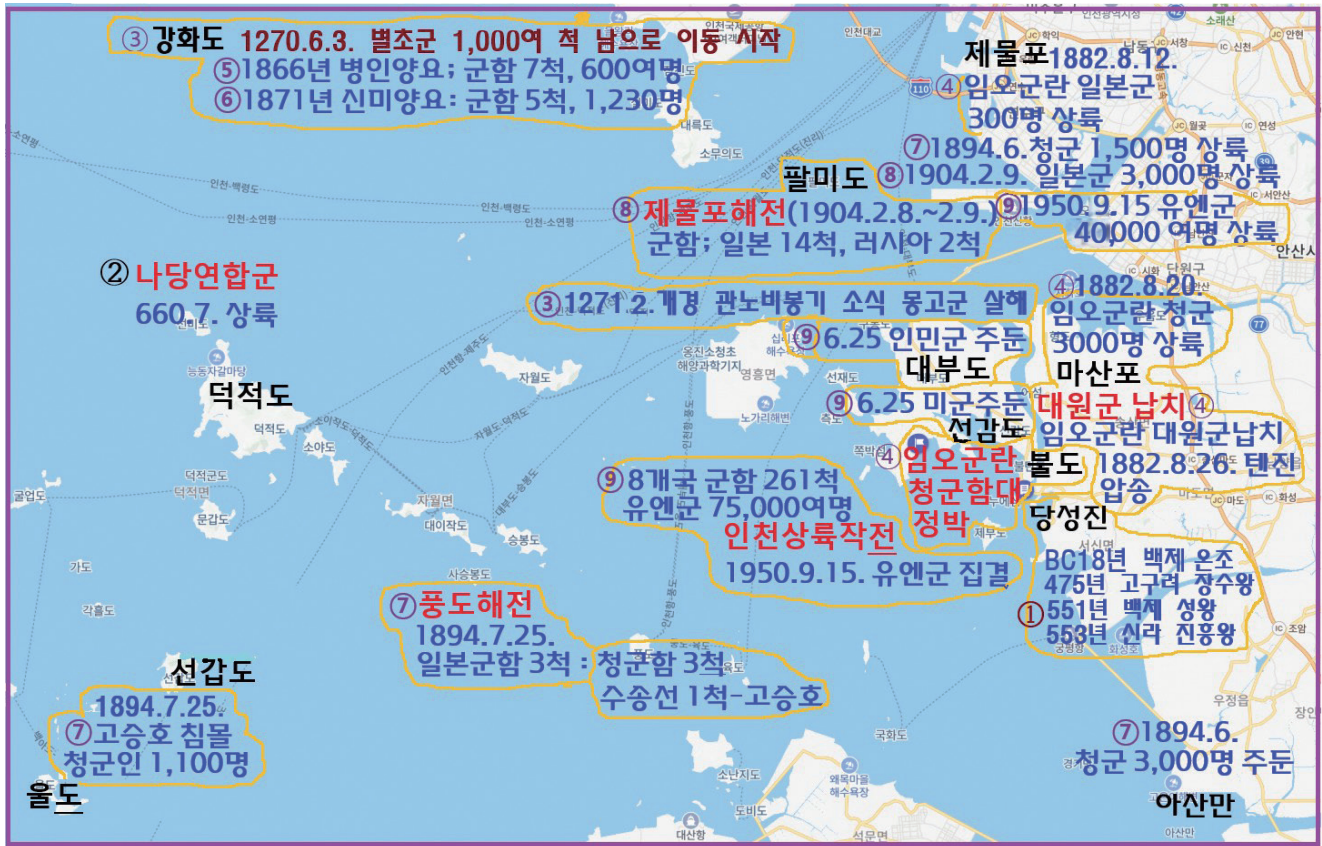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섬 『대부도 지명 이야기』 9회 중국과 일본, 개성과 한양으로 가는 길목을 차지한 주인공은(하)



晴境(정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이전호 계속〉
대부도 연안은 우리나라 수도(首都)의 엄마 품에 해당하는 중부해역에 위치해 동아시아의 운명을 좌우한 커다란 전쟁이 많았다.
역사상 전쟁이 가장 많았던 삼국시대 백제, 고구려, 신라가 각축을 벌인 당항성은 군사 충돌과 전략적 중심지로 제21대 개로왕까지는 백제, 475년 장수왕 때는 고구려, 551년 성왕 때는 백제에 속했다가, 553년에는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660년 6월 소정방 군대는 덕적도에 도착해 29대 김춘추의 장남 김법민(문무왕) 신라군과 합류했다. 나당연합군의 덕적도 상륙은 백제 멸망의 원인이 되고 삼국 통일의 전환점이 되었다.
고려 고종 18년(1231년) 원나라가 침입한다. 고려의 장기항전으로 강화도는 39년간 고려의 수도였으나 1270년 원종이 개경 환도를 명령하면서 삼별초가 혁파되었다. 삼별초는



〈국운을 뒤엎은 전쟁이 일어난 대부도 주변 연안 지도〉

1270년 6월 3일 1,000여 척의 배를 타고 남으로 이동을 시작한다. 다음 해 2월 착랑(窄梁)의 몽골 병사들이 대부도에 들어와 침탈하자 개경 관노비들의 봉기 소식을 듣고 몽골군을 처단하였다.
조선말 프랑스 신부 9명과 신자 8천여 명이 병인박해로 희생되자 1866년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공한 병인양요가 일어난다. 1871년에는 1866년 대동강에서 불탄 제너럴서먼호 사건을 구실로 미국이 침공한 신미양요가 있었고, 두 양요는 1876년 강화도 조약의 계기가 되었다.

임오군란은 고종 19년(1882년) 7월 23일 군납비리를 저지른 민경호, 민비(1897년 이후 명성황후)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어난 난(亂)이다. 그해 8월 10일 정여창의 북양함대 3척에 병력 4~500명이 제물포에 도착했다. 이들 후에는 일본군함 4척과 대대 병력 300명이 제물포에 상륙하고, 청나라 오장경(吳長慶)은 청군 3,000명과 마산포에 상륙한다. 26일 대원군을 강제로 남양만으로 압송·납치한다.
1894년 2월 발생한 동학농민운동 때 청군을 요청했고, 1894년 7월 25일 풍도해전이 일어났다. 일본해군의 순양함 요시노(吉野)와 아키쓰시마(秋津洲), 나니와(浪速) 3척과 청나라 제원(濟遠), 광을(廣乙), 조강(操江), 상선 고승(高陞) 간의 해전으로 일본이 완승했다.
1904년 2월 8~9일에는 방아머리 앞 팔미도 근해에서 제물포 해전이 발발했다. 제물포 해전은 1904년 2월 9일(러시아 기준 2월 8일) 대한제국의 제물포 앞바다에서 발발한 러일전쟁의 첫 해전이다. 일본 순양함 6척, 어뢰정 8척과 러시아의 제물포와 여순항의 제1태평양 함대 소속 바라크

(Varyag)와 코레예츠(Koreets) 간의 해전에서 일본이 완승했다. 그 후 2월 12일 대한제국과 러시아의 국교가 단절되었습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었다. 261척의 함정과 75,000여 명의 병력이 투입된 대규모 작전이었다. 이 작전으로 북한군 보급로를 차단하여 낙동강 전선의 유엔군이 반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같이 대부도 인근 연안에서 일어난 백제·고구려·신라 삼국시대의 당항성쟁탈전, 660년의 나당연합군, 1270년 고려의 개경환도와 삼별초의 남쪽 이동, 1271년의 대부도 몽고군 살해, 1894년 풍도해전으로 시작된 청일전쟁, 1904년 제물포해전으로 시작된 러일전쟁, 6.25전쟁의 전환점이 된 인천상륙작전 등이 일어날 때마다 지역의 주인공이 바뀌었다. 그 이유는 국력이 약하여 우리의 바다를 스스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해군 2함대가 서해안을 굳게 지키고, 대한민국이 세계 6대 군사강국으로 도약하여 대부도 주변 해역의 주인공이 되었다.

데스크 칼럼

안산 대송단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김태창
편집국장

20여 년을 맴돌아 온 안산 대송단지 개발이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차례의 경기 침체, 환경 논란, 보상 문제로 번번이 좌초되다시피 했던 이 사업이 내년 부터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하며 본격도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도가 인구 5만 명 이상이 거주할 자족도시라는 당초 목표를 떠올리면,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 안산의 미래 성장과 서부권 균형발전이 달린 만큼 ‘속도’와 ‘협력’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은 그간 대송단지 지를 짓느라 온 구조적 난제를 해소할 전환점이다.
대송지구와 송산그린시티를 연계하고, 신안산선과 내부 방사·순환형 교통망을 강화하는 전략은 대송단지의 최대 약점이던 접근성과 기반시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장치다. 이 개발 축이 현실화되면 대송단지는 단순한 주거지나 산업단지가 아닌, 일자리·정주·문화가 결합된 자족형 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과제는 만만치 않다. 대송단지는 공유수면에 위치해 있고, 사업시행자 역시 안산시가 아니라 농어촌공사다. 초기

보상비가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사업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개발 지연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문제를 풀 관건은 안산시와 정부, 농어촌공사 간 긴밀한 협의다.
특히 정부 차원의 명확한 지원 기조가 마련돼야만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국토부가 발표한 시화호 전략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으려면, 대송단지에 대한 국가적 지원 체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안산시는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며 본격적인 전략 수립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안산시가 조성원가 수준으로 가능한 한 많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다.
개발 이익을 외부 기관이나 특정 주체가 독점하는 구조로 흘러서는 안 된다. 지역민의 숙원 사업인 만큼, 대송단지의 가치와 수익이 다시 지역으로 환류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안산시가 최대한의 지분을 확보해야 미래 도시계획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다.
지난 2월 완료된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은 대송단지를 포함한 서부권 전체의 장기적 성장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구상에서 실행으로 넘어가는 일이다. 대송단지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늦춰질수록 지역의 미래 경쟁력만 뒤처진다.
20년간 멈춰 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정부와 안산시의 강력한 협력,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지역이익을 최대화하려는 확고한 원칙이다. 이번 로드맵이 대송단지 개발 정상화의 결정적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대표전화
홈페이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중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행정사사무소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대표 박정탁

안산시청 공무원 출신 행정사

- ◇ 2004년 안산시청 입사
- ◇ 2021년 안산시청 퇴직
- ◇ 대부도 3차례 근무 : 대부도 인허가 담당 (12~13년, 18년~21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ckr78@hanmail.net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체류형쉼터, 농막)

개발부담금
불법사항해소
(건축물, 임야, 농지)
진정서, 탄원서
농지취득증명
각종민원해소



대부도 수제포도와인 · 포도즙

우리랑

자연으로 빛은 건강한 한 잔

추억의 자연상회와 함께 하는 특별한 순간



자연 발효로 빛은 15년의 정성
안상의 자랑 대부도 수제 포도와인

우리랑